

■ 르포 ... 석탄공사 화순광업소 2017년 폐광 소식에 슬렁이는 화순



막장에선 화순탄광



2일 오후 버스에 몸을 실은 광부들이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매일 같이 땅속 500m 아래의 좁은 갱내(막장)로 들어가 목숨 걸고 캐낸 석탄으로 내 가족을 먹여살리고 국가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는 일념으로 버티온 광부들은 정부의 폐광 방침이 알려진 이후 웃음을 잃었다. 화순탄광은 지난 1905년 광구가 등록된 이후 1948년 8월 운영에 들어갔으며, 국토 서남권에 있는 마지막 탄광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일 오후 화순탄광 막장(갱내)에서 나오는 광부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들의 얼굴에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뒤의 피곤함 대신 불안감이 느껴졌다.

〈관령기사 3면〉
광부들은 본래 땅속 500m 아래 갱내 폐쇄된 공간에서 먼지와 사투하고 온몸이 땀범벅이 되도록 석탄을 캐낸 뒤에도 갱구를 빠져나온 순간부터는 왠지 불안했다. 내가 흘린 땀으로 가족을 먹여살리고, 내가 캐낸 석탄으로 서민들이 따뜻하게 한철을 보낸다는 자부심에서다. 광부들은 그러나 더는 웃지 않았다. 적자에 허덕이고 석탄 수요도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석탄공사를 정리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공사가 운영 중인 3곳의 탄광 중 규모가 가장 작은 화순탄광부터 내년부터 폐쇄하는 것을 정부

불안한 광부들 “땅속 500m 아래 막장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캄캄”

가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서다. 이날 오전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사무소 앞에는 투표소가 설치됐다. 정부의 화순탄광 폐쇄 방침 나아가 석탄공사 정리 방침에 맞서 노동자들에게 총파업 찬반을 묻고, 탄광을 지키려는 광부들의 의지를 정부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석탄을 캐고 운반하는데 꼭 필요한 오전 팀 광부들을 제외한 나머지 오후팀 광부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종일 투표소를 지켰다. 안전등이 달린 헬멧을 써야 할 머리에는 ‘탄광 폐쇄 결사 반대’라는 글이 적힌 붉은 머리띠가 묶였다.

총파업을 예고한 화순탄광 노동자 245명 외에 10여개 협력업체 노동자

“석탄 캐며 흘린 땀으로 국가경제 일으키고 서민들 삶 데워줬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대책 없이 폐광이라니...”
화순 등 노조 총파업 결정

270여명도 정부의 폐광 방침에 불안해하고 있다. 화순읍내 곳곳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화순탄광 폐쇄 방침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화순탄광 노동자와 가족 등 1400여명이 탄광 폐쇄가 현실화돼 떠나가면 상가 매출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날 화순탄광에서 만난 한 직원은 “땀이 흠뻑 젖도록 밀폐된 작업장(막장)을 언제나 벗어나려나 신세 한탄 한 적이 수없이 많았다”면서 “정부가 막장 탄광 문을 닫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계속해서 막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탄광 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오찬열 대한석탄공사노조 화순지부 부지부장도 “정부의 폐광 방침이 알려진 이후 갱내에서 일하는 광부를 포함해 전 직원들이 제대로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십년간 목숨을 걸고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일념

으로 석탄을 캐온 광부들에게 동의도, 대책도 없이 폐광 결정을 내리신 안 된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석탄공사 노조가 본사 및 각 광업소에서 2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투표 결과, 투표율 99.8%에 찬성 92.5%로 파업이 결정됐다. 파업 찬반 투표와 함께 진행된 화순, 강원 장성, 도계 등 전 광업소 동시 폐광 찬반투표 역시 투표율 99.8%에 찬성 96.3%로 가결됐다. 노조 측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정부의 발표 뒤 총파업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순탄광은 2017년, 장성탄광은 2019년, 도계탄광은 2021년 이후 폐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석탄공사 폐업을 검토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순=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

정부 지출 구조조정...광주·전남 내년 예산 ‘비상’

광주, 국비 2조2440억원 요청
전남, 올 5조5884억은 넘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기준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천명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계속·신규사업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광주시와 전남도 입장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실상 올 초부터 각 정부부처를 찾아 정부 예산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실은 지난달 27일까지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뒤 1일부터 1차 심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내년 국비 예산으로 2조2440

억원 규모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1조733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도 국비 요청 사업은 신규사업 89건에 2596억원, 계속사업 172건에 1조9844억원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해 주요 사업 반영 여부를 파악하는 등 대응 전략에 분주하다.

올해 5조5884억원 규모의 국비를 받은 전남도는 내년에는 이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정하고 정부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 3월 각 부처와 지자체, 공

공기관 등에 내려보낸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중 재량지출은 53%(203조원)로 여기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하면 168조원 규모다. 즉 최대 16조원 가량의 부처 재량지출을 줄여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쓸 방침이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유차 줄이고 경유값은 그대로

당정, 삼겹살 등 미세먼지 대량 발생 음식점 규제도 완화

‘서민 증세’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경유값 인상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등어·삼겹살 등 미세먼지 대량 발생 음식을 취급하는 영세 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디젤엔진 대책 강구 ▲화력발전소 연료의 친환경 전환 및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노상소각·공사장·노후차량 등 생활먼지 배출원에 대한 대책 강구 ▲미세먼지 측정소 추가 확충 및 오염물질 배출원 정밀분석 실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협력 강화 ▲정부에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유로5·유로6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 경유차에 혜택을 줬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아이중아: 광주 저출산 극복
아이중아 네트워크 범시민운동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아이는 축복이며 희망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결혼과 출산을 응원합니다.

청년일자리만들기 / 신혼부부행복주택 / 임신·출산진료비
출산축하금 / 손자녀돌보미·아이돌보미 / 보육료·양육수당

우리 함께 만들어요“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광주”

작은결혼식 / 생명존중 / 임신부배려 / 임신출산부담경감
양성평등육아 / 아동행복건강가정 / 일가정양립 / 다양한가족포용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